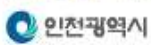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4월 14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 원	담당 자	• 대기평가과장 강희규 ☎440-5581 • 담당자 여인환 ☎440-5587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하절기 오존 예·경보제 집중 운영

- 4월 15일부터 6개월간 오존 예·경보 시행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호흡기 자극 및 폐 기능을 저하시켜 어린이, 노약자 등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예·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오존 예·경보제는 오염도 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고농도 발생 시 주의보·경보를 발령하여 오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며, 하절기 기온 상승과 강한 햇빛으로 오존이 다량 생성되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권역별 오존예보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(<https://air.incheon.go.kr>)에서 상시 확인가능하며, 홈페이지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해 최대 2개 지역(군, 구)에 대한 예보결과를 매일 오전 받아 볼 수 있다.

또한, 실제 오존 주의보 발령에 따른 경보제 발령문자는 시 홈페이지

(<https://www.incheon.go.kr>)의 소통광장 메뉴의 알림서비스에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오존과 같은 2차 생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보 발령 시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”라며 “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오존농도를 사전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< 오존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>

건강 생활 수칙			
참고: 오존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			
	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		어린이, 노약자, 호흡기 환자,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차제
	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 차제		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
	자동차 운행, 스프레이 사용, 드라이크리닝, 페인트칠, 시너 사용 억제		노천 소각 금지